

성경에 나타난 건강과 치유 고찰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구정아

I. 들어가는 말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인류의 건강수준을 최대한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1948년에 설립되어 그 이후 1998년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인 완전한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영적인 개념을 추가하였다.¹⁾

인류가 존재하고 살아가면서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원하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전 인류는 세계적인 코로나19, 기후위기, 그리고 전쟁의 위험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영적 안녕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치유라는 용어가 전인적인 관점에서 간절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간호학적 측면에서 치유라는 개념은 전인적 간호, 전문적 간호의 핵심으로 간호현장에서 주로 논의되어왔다.²⁾ 오히려 안녕(wellbeing)이라는 개념보다 더 지속적인 차원에서 강한 욕구가 증가하여 나타난 개념이 치유라고 할 수 있다.³⁾

간호란 태초부터 모성의 보살핌으로부터 시작해 인간의 생활과 함께 존재하는 활동으로 대한간호협회는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모두 포함한 대상으로 하여금 건강의 회복, 질병예방, 건강유지와 증진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력과 의지와 자원을 갖추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간호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간호의 기능은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수반해서 그 시대의 의료에 대한 사람들의 요청도 바뀌어 간호의 기능은 변화·확대해 나가는 것이다.⁴⁾ 이렇듯 간호의 본질로서 치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인간의 삶에서 질병 예방, 건강의 회복과 증진 그리고 고통을 경감하는 것으로 특히 기독교 간호사가 신앙에 기초한 치유의 의미를 확립하고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실천방안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치유의 본질적인 바탕이 되는 성경에 나타난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건강과 치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요구되고 있는 간호의 변화·확대된 기능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확립하여 기독교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이병숙 외, 『간호학개론 이해와 전망』, 2판 (서울: 학지사메디컬, 2019), 82.

2) Mary A. et al, *Dossey & Keegan's Holistic Nursing: A Handbook for Practice*. 8th ed. (Jones & Bartlett Learning, 2020), 43.

3) 이태희, 양제연, 박연옥, “힐링 체험목구와 트랜스포메이션 행동의도 관계연구-힐링관여도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건지리학회지』 24(2) (2014), 71.

4) 간호 [nursing, 看護, Pflege]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대한간호학회)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05168&cid=60408&categoryId=55558>. 2023년 1월 5일 접속.

II. 성경에 나타난 건강

1. 구약에서의 건강의 개념

건강은 간호의 목표로서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역동적 과정으로 넓은 의미에서 건강은 인간이 안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역동적 상태를 의미하며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성취하도록 한다.⁵⁾

먼저 성경에 나타난 건강의 의미를 바탕으로 치유적 접근방법을 확인해 보겠다.

구약성경에서는 육체의 모습을 가진 인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인간건강보다는 인간의 삶과 인격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샬롬(안녕), 정의, 순종, 힘, 다산 그리고 장수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⁶⁾

1) 샬롬

샬롬은 구약에서 가장 건강개념의 근접한 표현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체성, 완전성 그리고 안녕의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샬롬은 평화, 번성, 인간의 안녕과 건강, 현대적인 건강 개념보다 더 포괄적으로 육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존재와 연관된다. 여러 파생어를 낳았으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건강과 안녕에 있어서 선물의 결과로 묘사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호학이 인간에 대한 이해측면에서 총체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부분이나 신체를 분리한 환원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간호의 대상자가 완전한 사람이며 의학적 관점에서 질병으로 분류했던 것에서 벗어나 총체적 인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⁷⁾

2) 정의

정의는 곧음, 어떤 기준, 표준에 대한 순응, 올바른 기준에 대한 올바른 관계로 구약에서 건강 개념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평화를 가져온다. 정의는 평화와 함께 성장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생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약에서 여러 사례가 나오지만 그 중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과 정의가 건강에 대한 최고의 사례이다.

3) 순종

성경에서 인간의 건강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순종과 연결시킨다. 즉 순종은 안녕,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속함과 같은 적극적인 상태와 조건을 가져오는 질병으로 부터의 자유이며 불순종은 곧 질병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일을 포함하는 것을 건강을 위한 환경적 위생으로 음식, 물, 공기,

5) 신미자 외, 『간호학개론』 개정판 (서울: 수문사, 2022), 276.

6) 존 윌킨스, 『성경과 치유』, 김태수 옮김 (서울: 연합신문사, 2006), 30-43.

7) 앞의 책 199.

운동 위생시설과 쉼터 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등에 제시되어 있다.

4) 힘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되며 육체적인 면만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의 힘을 말하며 힘의 반대는 약함으로 중요한 징후로 이루는 병에 사용된다. 그리고 힘이 하나님의 선물일지라도 유지하는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5) 다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이고 이례적인 다산이 약속되었다.

6) 장수

신체적 측면에서 생명의 길이가 건강의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고 있다.

구약성경과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인간의 건강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는 관계이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경배 속에서 표현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둘째, 육체, 정신과 영혼의 상태에 대한 인격적인 책임의 수용과 이타적 겸손으로 표현되는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셋째, 가정, 사회와 국가적인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 마지막으로 건강은 안녕을 보존하고 자원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이다.⁸⁾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도한 건강한 인격에 대한 사례로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을 받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창 2:17)는 하나님의 말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 받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모두 반드시 고통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2. 신약에서의 건강의 개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묘사된 말씀으로 인간이 전인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삶의 네 가지 측면에서 성장하심을 보여 준다. 즉 예수님은 정신적인 지혜와 육체적인 키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면 인간과의 사회적인 면으로 성장함을 나타내고 있다.⁹⁾

신약에서의 건강은 전체성과 건전성, 안녕과 생명 그리고 힘의 구원 관점에서 다루어 졌다. 지배적 관점은 치유와 연관되어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며¹⁰⁾, 신약에서 건강을 생명, 복, 성결과 성숙으로 정의하고 있다.

8) 앞의 책, 44-45.

9) 이규식, "성서에 근거한 건강원리와 치유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논문집』 4 (1993), 63.

10) 티 엘 오스본, 『성경적인 치유』, 김진호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29.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으로 건강은 '생명의 풍성함', 또한 영생은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는 영원이라는 특질을 가진 생명이다. 인간 속에서 참된 건강과 성결을 구성하는 완전성, 건전성, 의를 창출하는 하나님 생명보다 더 건강한 것은 없다. 생명은 건강을 의미하며, 건강은 생명 그 자체가 된다.

두 번째는 신상수훈에서 나타난 것으로 마태복음에 제시된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간의 관계는 신약성경의 건강 개념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다. 건강은 여덟 가지 복으로 나타나고, 축복과 건강이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며, 이는 곧 육체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및 영적인 인간 생명 전체의 자리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영생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세 번째는 성결로서의 건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인간 속에서 발견되는 네 가지 특질과 속성들로 평화, 성결, 건전성과 무함의 결합이다. 이는 기독교 신자의 육체, 정신과 영혼의 모든 면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참된 완전성이고 참된 건강이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 인간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며 따라서 몸을 어떤 불결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사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숙으로서 바울의 건강관을 요약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완전한 성숙은 부활 이후에야 성취될 수 있지만 상대적인 성숙은 현세에도 가능하다. 온전한 성장과 완전한 발전뿐만 아니라 성숙한 건강과 안녕까지 포함한 전체성을 포함한다.

신약성경은 구약 성경의 건강 개념을 전제하여 전체성, 순종, 의와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사용하여 양과 기간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원의 질에 의해 측정되는 생명, 즉 영생으로 건강 개념의 변화를 가져왔다.¹¹⁾

즉,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영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나타내셨다. 이는 영적 구원과 함께 육체적 치유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며(시 103:3) 모든 사람을 치유하길 원하시며 구원은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생활은 육체적, 도덕적, 심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건강을 해치게 되므로,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그들이 영적인 중심을 발견하는 것이 건강 회복을 위해 요구된다.¹²⁾ 이는 곧 치유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Ⅲ. 성경적 치유의 의미

치유의 사전적 해석으로는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이다¹³⁾. 치료와 치유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치유는 육체의 질병의 나음을 포함하면서 보다 전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치료는 의학적 용어로 주로 육체적인 질병에서 낫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¹⁴⁾

치유가 의학과 신학에서 모두 거부되어 온 단어였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광의의 치유는 인

11) 앞의 책, 58.

12) 폴 투루니에, 『인간 치유』, 권달천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37.

13) 치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2023년 1월 3일 접속.

14) 이수환, "치유상담을 위한 선교적 교회의 역할," 「복음과선교」 34 (2016), 122.

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일체로서 기능하도록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치유가 의학이나 신학으로의 근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유는 단순하고 국한된 외상만을 회복되는 형태의 물리적 의미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삶과 존재의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¹⁵⁾

성경에서 치유는 구속적인 은혜와 그 은혜의 표현이며 진정한 치유란 단지 질병이 잘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치유된 이후에 계속적인 삶의 자세까지 확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을 완전한 치유로 보았다.¹⁶⁾

성경에서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죄, 질병과 죽음으로 고통 받고 억눌린 자를 구원하고 치유하여 완전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성경적인 치유에 대해 부인하거나 불순종할 수 없다.¹⁷⁾

치유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고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라파이며 이 용어가 이사야서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신체의 다른 영역에 속한 것들이 아닌 듣는 것, 보는 것, 마음으로 깨닫는 것으로 건강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로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이를 깨닫고 옳지 않은 악한 삶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의식을 갖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다.¹⁸⁾ 그 외에도 구약성경에서는 삼마, 아룩하, 마르페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다.

구약성경에 치유사역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경우,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하여 치유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예방의 가르침과 질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었다.

치유적 측면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치유사역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숨어 있을 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정신적 치유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비멜렉의 아내의 불임 치유,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서 치유, 이스라엘 민족이 수르 광야에서의 단물로 치유하신 사건 또 민수기에서 늦밤 장대로 치유, 열왕기 상에서 엘리아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치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적 측면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배설물 처리하는 방법과 제사장을 통하여 한센환자, 성병, 흑사병을 살피고 환자를 격리하여 접촉을 피하여 교차 감염을 막은 예방적 방법이며 그 외에도 위생법, 청결법, 격리법, 식이요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질병에 대한 예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절대적 주권자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¹⁹⁾

치유는 헬라어로 켈라퓨어, 이아오마이, 휘기에스라는 단어가 있다.²⁰⁾

켈라퓨어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병을 낫게 한다는 뜻으로 신약성경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로 고치다, 치료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이후에 치료하다는 단어로 파생되었고 의학적 처치나 치유를 포함하는 의미로 건강을 회복하다, 봉사하다는 의미이며 신약성경에서 예수

15) 앞의 책, 16.

16) 앞의 논문, 125.

17) 앞의 책, 26.

18) 윤영준, “이사야서의 치유와 영산의 이사야 53장 해석,” 『영산신학저널』 52 (2020), 114.

19) 앞의 논문, 78.

20) 앞의 논문, 119-155.

님과 제자들이 행한 기적적인 치유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아오마이는 치료하다, 회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신약성경에 나오며 구약성경에서 치유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라파이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치유자로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이름중 하나로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휘기에는 문자 자체가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 강한, 활동적인, 건전한, 다시 건강하게 하다. 치료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후 위생이라는 용어로 파생되었다. 따라서 치유란 인간성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형상을 갖추게 하여 인간 본연의 모습인 정상적인 상태를 되찾게 하는 것이며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영혼을 포함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올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치유가 이스라엘의 극심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육체적인 치유에 초점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 있다는 것이다.²¹⁾

구약에 나타난 치유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건강은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다. 즉 전인적인 건강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로 기독교적인 관점을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치유하시는 분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간구하는 기도에 영적인 정화를 간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성경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궁극적인 표현임을 강조하고 있다.²²⁾

신약에서는 주로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인 3년 동안의 치유역사로 구성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관점에서의 치유의 의미와 함께 복음서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치유 이적과 관련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며 시작하였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이런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마태복음에서는 다양한 병자들의 치유를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화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인간관계, 삶의 현장과 공동체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을 넘어 인간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화해, 용서, 돌봄 등의 다양한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²³⁾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와 치유의 관계는 첫째는 말씀 선포와 치유, 둘째는 치유 사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말씀 선포와 치유는 그리스도는 세상을 살리는 구원자, 치유자이면서 직접 치유자의 활동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다. 즉 말씀의 능력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마음 상한 자가 치유된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질병에 노예 된 사람들을 평화와 자유로 인도한 구원의 사역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에게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의 파송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²⁴⁾

21) 김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 상담의 방향,” 『성경과신학』 95 (2020), 93-122. 104.

22) 김경수, 『성경적 내적 치유』 (경기도: 목양, 2010), 37.

23) 앞의 논문, 105.

누가복음 4장 18-19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과 내용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²⁵⁾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또한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특징을 설명하는 핵심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 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구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였음이라”(사 10:38)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 선포와 치유사역이 중요하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 내적인 모습을 바꾸는 능력이며 이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고 치유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²⁶⁾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말씀으로 치유되는 현상을 복음에 대한 믿음이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예수님의 치유로 사람을 새롭게 회복시켜 인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수단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게 하는 매개체인 것이다.²⁷⁾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많이 이루어졌다. 치유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그 중 치유사역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지시적 메커니즘이 관련된 고침, 좀 더 복잡한 기술이 관련된 고침과 심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닌 다른 삶의 믿음이 관련된 고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예수님의 치유를 사탄이 패배 당함, 너희 죄가 용서 받았느니라, 원수가 멸망당함과 회복된 건강으로 나누기도 한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대부분을 치유사역에 할애하고 의사였던 누가의 복음서에 가장 많은 기록이 있다.

둘째,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단순한 과학의 차원을 넘어서는 높은 차원에서의 영적인 능력을 행하셨다.

셋째,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기적은 단순한 심리적인 영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일이다.

넷째,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결코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았

24) 배재욱, “예수의 복음 선포에 나타난 치유와 생명 회복,” 『영산신학저널』 40 (2017), 52-53.

25) 앞의 책, 56.

26) 앞의 논문, 53.

27) 앞의 논문, 57.

다. 즉 본인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사역의 일차적인 동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연민이었다.

다섯째,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진정한 목적은 영적, 구속적인 것이다.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치유사역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징표이다.

일곱째, 예수님은 항상 전인적인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주신 것이다.²⁸⁾

IV. 치유에 관련된 사항들

1.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이해

예수님의 활동을 주제로 한 복음서에 있는 여러 치유에 관한 사건들은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들이다.²⁹⁾

첫째, 인간을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 지상 사역의 초점이기도 한 것이다.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치유하기를 거리까지 않으시며 종교적 계율보다는 병든 자의 지체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일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일임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다. 그리고 선한목자로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헤매는 모습과 그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신다고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격의 주체로 보셨다.

둘째, 인간을 전인적으로 보셨다. 육체와 영혼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로 인간을 이해하였고 예수님의 치유사역에서도 육체의 질병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치유하신 사실을 볼 수 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병의 근원이 죄에 기인하고 있음을 말씀하셨다.

셋째, 예수님은 인간을 고통당하는 존재로 이해하셨다. 인간은 죄, 질병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존재이며 이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통당해야 하는 존재로 보신 것이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으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시는 대속자로 예언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다.

2. 예수님의 치유 동기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유사역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다.³⁰⁾

1) 연민의 표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에게 대한 순전한 사랑이었다. 연민에 대한 내적 감정에 대한 표현으로 치유는 그것에 대한 외적 표현인 것이다. 즉, 굶주림의 목격,

28) 앞의 책, 45-46.

29) 앞의 책, 119-120.

30) 앞의 책, 158-168.

목자 없는 상태, 애곡하는 모습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모습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집단적 그리고 개인적 치유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2) 자비를 구함에 대한 응답

예수님에게 병자들이 다가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부르짖음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이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기꺼이 고쳐주시리라는 것을 가정한다. 자비를 구하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은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 선생이었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권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호칭은 병자들이 자비를 구하고 치유받기를 소원하여 예수님께 다가갔던 믿음의 근거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3) 믿음에 대한 응답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포함하여 치유에 대한 요청을 받으셨을 때도 응답하셨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믿음은 병자나 그의 주변인들의 태도 속에 잘 함축되어 나타난다.

4) 영광을 나타내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기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자로를 다시 살리는 사례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기적들이 분명한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치유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과 살아계신 능력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5) 성경의 성취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 사역을 구약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적 예언들의 성취로 보셨다. 이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참으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자신의 치유와 설교 활동들을 통해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히 강조 하셨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하고 듣고자 했던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것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다.

3. 예수님의 치유 방법

예수님이 치유사역에 사용한 방법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었고 이 방법들은 단순하고 효과적이었다. 이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가능한 의학 기술의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이었고 그 결과는 극적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다음에서 다양한 치유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³¹⁾

31) 앞의 책, 169-193.

1) 말씀을 통한 치유

예수님이 귀신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어도 말씀과 명령으로 치유하신 것이다.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귀신을 축출할 때 사용했던 정확한 단어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예수님은 직접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고 명령한 것으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님이 사셨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과 아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또한 말씀을 통해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의 장애인, 손 마른 사람,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에게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다.

다른 사례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경우에도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죽은 자에게 명령하여 관에서 일어서 나오도록 하셨다.

2) 안수에 의한 치유

예수님이 안수로 병을 치유한 것으로 고창병 걸린 사람, 말고의 귀, 나사렛에서의 치유, 저녁시간에 행하신 치유, 혈루증 걸린 여인, 해변에서의 치유와 게네사레에서의 치유이다. 여기서 안수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예수님이 병자에게 손을 얹어 구원을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허락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자신들이 치유 받을 것이라고 믿는 환자들의 믿음이 언급된다.

3) 침과 진흙을 사용한 치유

예수님의 치유사역 중에서 침과 진흙을 섞어서 사용하셨던 3가지 사례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시대에 침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치유의 수단이었지만 예수님은 침을 직접적인 치유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인격과 권능의 매개체로 사용하셨다. 마가복음에서 귀먹고 어눌한 자, 벧새다의 소경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침을 진흙에 섞어서 소경의 눈에 문지르고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다. 이러한 방법이 과학적인 검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치유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4) 원거리 치유

현대에서는 원격조정 같은 방법일 것이다. 이 원거리 치유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귀족의 아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아들과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소녀이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환자를 직접 보시지도 않고 치유하셨던 사례들이며 치유 능력이 전달될 만한 연민이나 기회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특별한 치유방법은 나오지 않고 다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는 명령과 환자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만이 단순히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예수님이 사용한 치유방법들은 영구적인 효과를 지녔고 병자들과 만났던 시간은 매

우 짧았지만 대부분의 치유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치유의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권능으로 돌렸고 병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영을 일깨워 주어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과의 교제를 통해 인간의 몸과 마음을 재창조하도록 한 것이다.³²⁾

치유는 단지 신체적인 질병이 회복되는 것 뿐 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과 영적인 면도 새로워지는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³³⁾

V. 나가는 말

성경은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치유가 필수적임을 역사적 치유 사역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원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여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치유의 본질적인 요소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온전히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를 나타내고 있다. 인간의 본질을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측면으로 전인적 관점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학에서 관점의 인간관은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통합된 총체적 측면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있고 이는 곧 성경에서의 인간관과 일치한다. 따라서 간호의 목적은 인간의 삶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경감하는데 있으며, 특히 기독교 간호사가 신앙을 바탕으로 성경에 나타난 간호의 의미로서의 건강과 치유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은 삶과 신앙생활을 연결하여 적용하는 중요한 실천방안이다.

기독교 간호사는 우리의 대상자인 인간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치유를 통해 온전한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기독교적인 간호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기초한 치유와 돌봄 더 나아가 복음 전도까지 수행하는 것은 기독교 간호사로서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32) 앞의 논문, 82.

33) 앞의 논문, 60.

참고문헌

- 김경수. 『성경적 내적치유』. 서울: 목양, 2001.
- 김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독교 상담의 방향.” 『성경과신학』 95 (2020): 93-122.
- 배재욱. “예수의 복음 선포에 나타난 치유와 생명 회복.” 『영산신학저널』 40 (2017): 47-73.
- 신미자 외. 『간호학개론』. 개정판. 경기도: 수문사, 2022.
- 오스본, 티, 엘. 『성경적인 치유』. 김진호 옮김. 서울: 믿음의 말씀사, 2008
- 이규식. “성서에 근거한 건강원리와 치유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논문집』 4 (1993): 61-85.
- 이병숙 외. 『간호학개론 이해와 전망』. 2판. 서울: 학지사메디컬, 2019.
- 이수환. “치유상담을 위한 선교적 교회의 역할.” 『복음과선교』 34 (2016): 119-155.
- 이태희, 양제연, 박연옥. “힐링 체험욕구와 트랜스포메이션 행동의도 관계연구-힐링 관여도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4(2) (2014): 67-80.
- 윤영준. “이사야서의 치유와 영산의 이사야 53장 해석.” 『영산신학저널』 52 (2020): 109-139.
- 월킨스, 존. 『성경과 치유』. 김태수 옮김. 서울: 연합신문사, 2006.
- 투루니에, 폴. 『인간치유』. 권달천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 Helming, A. Blaszko Mary, Shields A. Deborah , Avino M. Karen and Rosa. E. William. *Dossey & Keegan's Holistic Nursing: A Handbook for Practice*. 8th ed. Jones & Bartlett Learning; 2020.
- 치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2023년 1월 3일 접속.
- 간호 [nursing, 看護, Pflege]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대한간호학회)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05168&cid=60408&categoryId=55558>.
2023년 1월 5일 접속.

한글 초록

이 논문은 성경에 나타난 건강과 치유를 고찰하여 기독교 간호사로서의 삶의 실천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구약성경에서의 건강과 치유, 신약성경에서 나타난 건강과 치유로 구성된다. 원죄로 인해 고통 받고 아픔을 겪는 인간에게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치유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인 면을 모두 포함한 전인적인 관점으로 간호의 본질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건강과 치유는 간호학에서 중요한 주제이며 성경에 제시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독교 간호사로서의 삶과 신앙을 연결하고 있는 중요한 실천방안이다.

주제어

치유(healing), 건강(health)

A Study on Health and Healing in the Bible

This is a study to examine health and healing in the Bible and use it as a practical part of life as a Christian nurse. This thesis consists of health and healing in the Old Testament and health and healing in the New Testament. The most fundamental purpose of healing is to restore the relationship of God by sending Jesus who died as a ransom for human beings suffer and suffering from original sin. Th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in the Bible coincides with the essence of nursing from a holistic perspective including physical, mental, psychological and spiritual aspects. In addition, health and healing are important topics in nursing, establishing an identity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presented in the Bible, and an important practice plan that connects life and faith as a Christian nurse.